



마에다 미에코씨

1954년 1월 13일생

소아성 미나마타병환자. 부모님들은 미나마타병환자임.

발병전후의 일들, 어릴적 메이신의 모습과 어릴적의 놀이터, 가족과 양친의 미나마타병, 학교생활, 청춘시절, 현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함.

2008년 5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시 묘진초 재주

저는 어릴적에 어른의 장화를 신고 여기저기 뛰어 다닐 정도로 건강했지만, 2, 3살때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아마비가 아닐까 라고 들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묘진이고, 주위에는 집이 4채밖에 없었지만, 다들 가족들처럼 사이가 좋아, 따돌림을 당한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주였고 미나마타병으로 9년 동안 누운채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담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불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양친도 미나마타병, 친척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환자단체의 회장이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가서 따돌림을 당할까봐 학교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케이스워커선생님이, 입원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것을 권했습니다. 입원중은 많은 사람들이 병문에 왔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일본각지로 부터 많은 지원자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마음의 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에코파크의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꽃 관리와 쓰레기를 따로 거두기 등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언니랑 둘이서 삽니다. 재활을 위해 미상가랑 목도리랑 뜨군 합니다. 취미는 사진촬영으로서 장미꽃 등 계절에 맞춰 피는 꽃이랑 풍경이랑 촬영하곤 합니다.

저는 미나마타를 좋아합니다. 짓소가 있었기에 미나마타는 큰 도시로 되었습니다.